

“졸리면 자고 깨면 일어나”



평생 이 길을 걸었다. 무치님이 계신 법당. 동성 스님은 구도의 길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다만 세월의 흐름만큼은 거스랄 수 없더라는...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동성 스님 (내장사 선원 조실)

세 수 아흔 여덟, 세월도 기억력도 슬픈 시간 속에 산화했다. 무심함이 움푹 패인 주름살에 응크렸다. 100세를 2년 앞둔 현재 한국스님들 중 최고령 스님이지만 눈빛은 수좌답게 형형했다. 그 눈빛이 시간의 티끌들을 말끔히 걸어냈다.

정읍 내장사 조실 동성 스님. 스승과의 인연에서 수행자의 '살림살이'를 풀어놓았다.

"출가하기 한 해 전, 그러니까 스무 살 때였어. 스님에게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었지. 그러니 스님이 '가까이 오라'며 '귀를 내게 대라!'고 하시더군요. 불에 닿지. 그런데 갑자기 스님이 큰 소리를 질러, 깜짝 놀랐어. 그러곤 대뜸 '알겠느냐?'고 해, '모르겠습니다'고 했더니 '하, 둔한 사람이로군. 나가 거라!'고 하시더군요. '거참, 이 노인네 봐라'기가 찼어."

요양하러 금강산에 들렀던 동성 스님. 스승 한암 스님의 말씀을 알 턱이 없었다. 분한 마음에 오대산 상원사에 놀러왔기로 마음을 먹었다. 부목 살이를 시작했다. 낮에는 땀 나무를 구하고, 저녁에는 귀동냥을 위해 스승의 방 앞을 서성거렸다.

‘최고령’ 스님… 지금도 새벽 3시 참선 쌀 3되 들고 오대산 서대에서 용맹정진 은사 한암 스님과 법거량후 인가 받아

"한암 스님이 진짜 스승이야. 참으로 엄격한 분이었어. 웬만해선 쓰다 달다 군소리 한 마디가 없던 양반이야. 오대산에 들어가 27년간 산문 밖을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로 유명하잖아?"

스승은 알뜰하고도 서운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것이 동성 스님에게는 약이 됐다. 3개월간 부목을 하고, 곧바로 공양주, 채공, 원주 살이를 하면서 수좌의 기질이 다져져 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30년간 스승의 밑에서 살면서 수행자의 길을 차근차근 밟았다.

"스님은 늘 '파거불행(破事不行)'이요 '노인불수(老人不修)'라고 강조했어. 깨진 수레는 가질 못하고, 늙으면 수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지. 이 가르침을 지니고, 나는 지금까지 수행해왔지."

스승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 그럼, 스승을 밀천 삼아 수행을 어떻게 했을까? 동성 스님이 일귀는 살림살이가 궁핍해졌다.

"어느 해인지 모르겠어. 원주에게 쌀 3되를 타가지고 오대산 서대에 들어갔지. 머리와 수염도 깎지 않고 마치 원시인같이 오직 화두만 잡았어. 시계가 없으니 시간도 몰랐지. 밤이나 낮이나 한번도 육신을 바닥에 대고 누워본 일이 없었지. 낮에는 머루 잎과 솔잎으로 배를 채우며 공부에 전념하고, 밤에는 앉아서 화두정진으로 밤을 새웠어."

느릿느릿한 스님의 말이 빨라졌다. 자신과 별다른 처절한 수행담이 흥미진진하게 이어지면서, 기자의 귀를 쫓아 새 없이 잡아 당겼다.

"하루는 갑자기 시루떡 냄새가 나길래, 예전에 어머니가 떡을 해줬던 생각이 나 눈물이 나더군요. 다시 생각하니 화두는 어디가고 망"

상으로 자성이 흐리게 되더군요. 마음을 가다듬고 밖에 나와 산책을 한 후, 방에 가서 단정히 몸을 정좌하고 공부에 매달렸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땀이 뚝뚝 치며 '꼬끼오' 하고 울더군요. 또 밖에서 탕 하고 큰소리가 났어. 마치 무서운 꿈을 깬 듯, 침묵 같은 밤에 백천 일월이 쏘는 듯하대." 그 순간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걸까?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오도송이 있나 여쭈었다.

'야! 어려움이여, 쉽고 쉬움이여! 무엇이 어려우며 무엇이 쉬운고.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도다. 천지(天地)는 동근(洞觀)이요, 세계(世界)는 일가(一家)로다' 오도송을 읊어준 후 스님은 곧장 스승과 별했던 법거량 이야기를 했다.

"곧장 들어갔지. 한암 스님이 '누구나'고 해, 그래서 얼른 손가락을 하나 세워보았지. 스님도 손가락을 하나 세우시더군요. 재빨리 내가 '천지동근(天地洞觀)이요, 세계일가(世界一家)로다'라고 외쳤어.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 그러더니 머무를 내놓으며 먹을 갈라하기에 조용히 갔었어. 좀 있다가 종이와 붓을 내어 글을 한 줄 써줬어. '벽력입성(霹靂一擊)에 효천명(昊天命)이요, 장부일갈(丈夫一噉)에 성우주(性宇宙)'라며 술인(實眞)을 8월 14일 날짜까지 기록하고, 또 봉정(峯正)이란 법명까지 지어주셨지."

스승은 그렇게 제자를 인가했다. 동성 스님은 그 글귀를 한암 스님 앞에서 크게 읽고는 성냥을 갖고 밖에 나왔다. 그리고 곧장 그 종이에 쓴 글을 불살라버렸다. 왜 그랬을까?

"써준 것을 기억하면 그 뿐이지, 글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그래서일까? 스님은 그 흔한 휘호 하나 없다. 붓과 벼루를 곁에 두지도 않는다. 오후 내내 스님의 살림살이를 듣고 있을 즈음, 금금 증은 요즘 스님의 하루 일과 이야기로 이어졌다.

"늦으니 잠이 없어졌어. 졸릴 때 자고 잠 깨면 일어나. 그래도 새벽 3시에는 눈을 뜨지. 일어나면 곧장 <금강경>을 읽고, 방에서 좌선을 해, 화두라고 들 것 없이 그냥 참선을 하지. 요즘에는 운동도 해, 경내를 돌며 포행을 하지. 걷는 게 운동이 아니겠어."

내장선원 조실 방을 둘러보고 마루에 잠시 앉았다. 연두 빛 단풍 나무가 한 눈에 안겼다.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사의 가을보다 한결 생동적이다. 백수를 바라보는 노 선사의 얼굴빛이 막 피워 오른 새벽의 단풍 잎 같았다.

6년 생식·7년 장좌불와와 '귀감'

동성 스님은 | 1908년 충남 논산 생. 34년 한암 스님을 은사로 입산 출가했고, 박한성 스님의 법제자가 됐다. 45년 오대산 서대에서 깨달음을 얻고, 이후 6년간 생식하고, 7년간 장좌불와를 했다. 불교정화시 강원종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했으며, 삼척 청련암, 건봉사, 대흥사 주지 등을 지냈다. 현재는 내장사 조실, 대천 배달정사 회주로 있다. 저서로는 <보기출발록(觀己出發錄)>, 한시집 <현대해상서(汝海藏書)> 등이 있다.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짐다가 남겨놓은 이야기들. 험난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아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 '아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글_ 장용철 / 그림_ 고암 청병례

고 단 한 인 생 의 등 짐 을 받 쳐 주 는 '작 대 기' ● 내 삶 의 진 정 한 응 원 꾀 '작 대 기' ● 지 친 삶 에 활 력 을 주 는 감 동 의 이 야 기 들 '작 대 기'

마음의 업경대 지니고 사세요

동성 스님의 가르침

마음공부에는 출·재가가 없습니다. 선수행의 목적은 '지무생사(知無生死, 知無生無死, 知無生無死, 知無生無死)'의 이치를 깨닫고 견성·성불하는데 있어요. 나고 죽음이 없음을 알고, 스스로 단련하고 몸에도 배도 연마하며, 몸의 연마가 잘 돼 자유자재하게 하는 것이 수행의 목표인 것입니다. 어떻게 출가와 재가의 구분이 있었어요.

장군이 칼을 쓰려면 많은 수련을 쌓아야 그 어떤 적도 대치할 수 있지요? 이렇듯 '생사 없음'을 몸으로 체득하고, 많은 수행을 닦은 후에만 생사를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방거사는 부인과 딸, 아들 둘과 함께 많은 재산을 현 신작처럼 던져버리고, '생사 없음'을 자유자재로 쓰고 갑니다. 아들 둘은 친구 집 '머슴'으로, 부인은 아들이 머슴살이하는 친구 집에 공양주로, 딸은 방거사와 함께 살면서 자유인의 삶을 살았지요. 이후 딸은 홀연히 방거사 곁을 떠났고, 방거사는 지방 고을 수장인 자사의 무릎을 꿇고서 입적했지요. 부인은 방거사의 열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몸을 벗었고, 아들 둘은 밭일을 하다가 떠났지요. 그야말로 방거사 가족 모두가 본래부터 '생사 없음'을 제대로 알고 체득하며 쓰고 있던 것이지요.

우리가 부모에게 나기 전에 무엇이었을까요? 코 구멍에 들락날락하는 이 놈만 없으면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도 가져다 내버리지요. '생본무생(生本無生)'이라 말본무멸(滅本無滅)이라, 태어남은 본래 태어남이 없는 것이요, 죽는 것도 본래 죽은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사 없는 이치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지무생사'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끌고 다는 것은 불생불멸이요. 그런 줄을 알면, '체무생사'가 돼야 해요. 생사 없음을 체득해야 한다는 소리지요. 이를 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치를 알고 체득해 견성(見性)을 했어도 보입(補入)을 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았어도 그 아이를 잘 키워야 하는 것처럼, 견성을 했어도 보입을 잘해야 하지요. '용무생사'의 이치를 잘 꿰는 것이 보입이지요.

심우도(壽牛圖)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같아요. 소를 찾아(尋牛)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見跡), 그 소를 보고서(見牛) 얻지요(得牛), 그리고 그 소의 코를 풀어 길을 들어요(牧牛). 이 때 길들이 없는 소가 도망가지 않게 붙잡고 늘어져야 하죠. 우리 마음자리도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도망가는 것처럼, 길들이 없는 소보다 더 하찮아요.

그 놈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소를 길들이면, 붙잡고 있지 않아도 가만히 있었지요. 그럼 가다가도 '워~워~'하면 서게 돼요. '지무생사'는 소의 발자국을 따라 소를 찾아가는 것과 같고, '체무생사'는 길들이 없는 그 소를 길들이는 것이고, '용무생사'는 길든 소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공부해서 견성하는데 무슨 머리 꺾고 안 꺾는 것이 중요하나요? 방거사의 다섯 가지가 생사



소를 찾아 길들이고
마음대로 다루듯
스스로 단련 연마해
생사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절을 하고 있는 동성 스님.

의 이치를 알고 홀연히 떠나갔듯이, 재가불자도 생사 없음을 알고 체득하면 자유자재하게 이 이치를 쓸 수 있어요. 곱게미만 중 복색만 한다고, 다 중이 아닌 거예요. 마음이 중이 돼야 하지요. 이 공부의 병신도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 가서 즐기한다고 공부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집에 있다고 공부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요. 마음공부를 하는데 출·재가의 구분이 없지요.

그럼, 재가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거사 식구들은 처음부터 머리 깎고 집에 들어가 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밭일 하고 땀 나무 구하고 일 하면서 수행을 했지요. 마음공부를 하는데 출가자나 재가자나 하는 구분은 애초부터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만약 방거사 가족이 출·재가를 구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생사 없음'의 이치를 알지도 체득하지도 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수월 스님은 일생을 어디에 가든지 '소승이 부목 하겠습시다'며 일하면서 수행했어요. 평민으로서 황제에 오른 중국의 순치 황제도 저리에서 풀러나 한 사람에서 부목을 자칭했지요.

수행은 이처럼 수월 스님이나 순치 황제가 절에서 나무 베고 장작 때며 무념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 아니지요. 일상사가 그대로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삼천대천세계를 내다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체과학자가 저 멀리있는 별의 거리를 계산해 10억만년이라 했다고 칩시다. 빛이 그 별까지 간 거리를 생한 것이지요.

그럼, 가장 크고 제일 빠르고, 둥근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빛이 별까지 달려간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입니다. 왜 그런 줄 알니까? 그 과학자의 마음이 그 별에 도달한 겁니다. 과학자의 마음이 즉각 거기에 도착한 것이지요. 삼천대천세계를 즉각 내다보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무생사, 체무생사, 용무생사'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는 삼독심(三毒心)에서 나옵니다. 그 삼독심은 번뇌 망상에서 나옵니다. 진심(真心)이 가장 마음에 서 해롭습니다. 공부하는 수좌들이 진심 한번 잘 못 내면, 몇 해 동안 해운 공부들 한꺼번에 까먹는다고 합니다. '일사진심(一事真心)이면 수사보(受蛇報)'라 했지요. 한번 생념은 그것으로도 독사의 꼬리를 받는다는 뜻이지요. 순간순간에 과보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으면 경찰사나 재판정에 갈 일이 없겠지요. 진심을 안치고 마음을 잘 쓰면, 명부전 열라대왕에게 끌려 갈 일이 없습시다.

그러니 불자들은 '마음의 업경대(業鏡臺)'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업경대는 그간 살아온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업경대는 지나는 세월을 돌이켜 볼 수 있게 합니다. 열라대왕이 죽으면 '업경대를 가져오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비춰 볼 수 있는 업경대를 잘 지니고 있어야 하겠습시다.

정리=김철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7>



원숙한 노년, 저돌적인 청년(하)

옛날에 뱀 한 마리가 있었습시다. 어느 날 그 뱀의 꼬리가 뱀의 머리에 닿았을 때 말하셨습니다.

"왜 항상 네가 앞장을 서야 하지? 내가 앞에서 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머리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앞에서 가야해. 언제나 그렇게 지내 왔는데 갑자기 왜 불평을 하는 거야?"

머리가 꼬리에게 일침을 놓고서 어느 때처럼 앞에 서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나무에 제 몸을 감았지요.

꼬리의 심술에 머리가 꺾였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앞에 서 보아라."

꼬리는 얼른 나무에 감았던 제 몸을 풀고 앞장서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 불구덩이에 떨어져 그만 뱀은 죽고 말았습니다.

<백유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에서 뱀의 머리는 나이 먹은 스승을, 꼬리는 젊은 제자를 비

기도 하지만 노인들조차도 노년에 처한 자신들을 그리 곱게 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노년이라는 삶의 시기는 무의미하고 구차하기만 한 것일까요? 사람의 일생이란 영유아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소년, 청년, 장년의 시기를 거쳐 노년의 시기까지 이르러야만 완성이 되는 것인데, 과연 노년을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노년은 사람을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사람의 몸을 허약하게 하며, 사람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노년의 사람은 비참해 보인다고 합니다(키케로, 앞의 책).

하지만 이런 네 가지 이유가 있기에 노년이야말로 여유롭고 진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되짚어보지만, 세상의 중요한 일은 체력이 나 민첩성, 신체의 기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과 명망과 판단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자질들은 노년이 되면 대개 더 늘어나는 법이요, 세상의 모든 죄악은 쾌락을 쫓는 데에서 비롯되지만 노년의 삶은 쾌락에 잠기고 싶어도 잠글 수 없게 육체가 쇠약해져 버렸으니 이제야말로 마음의 눈을 뜨고 미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데에서 비롯되지만 노년의 삶은 쾌락에 잠기고 싶어도 잠글 수 없게 육체가 쇠약해져 버렸으니 이제야말로 마음의 눈을 뜨고 미덕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셈입니다.

노년은 마음의 눈 뜰 절호의 기회

바깥 경계에 애착 가지면 철부지

지혜의 삶 살면 20대도 풍요로워

유하고 있습니다. 늙은 스승이 언제나 앞에서 자기들을 이끌고 가는 것에 반발을 한 젊은 제자들이 자신들이 앞장서서 교단을 이끌고 가지만 제물을 익숙하지 못한 결과 결국 노스승과 젊은 제자들이 함께 계율을 범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을 던지시 알려주고 있죠.

늙음을 덧엮고 괴로운 일이라고 경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저돌적인 젊은이의 패기 보다는 노인의 연륜을 높이 사고 있는 경을 발견한 것은 의외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말년의 한 설법에서 한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하려면 신구세대가 화합해야 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아주 유명한 바지국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계 주고 계십니다(대반열반경).

사실 노인이 젊음의 힘을 겨루어서 이길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지하철에서의 그 실랑이를 보면 가슴 아팠던 것은 그토록 호방하게 고함치던 노인이 단 한 순간에 젊은이의 기세에 눌리고 그의 고향에기가 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어린 아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듯이 사람도 늙으면 항상 모든 무리의 업신여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젊은이들의 업신여김을 받

그리고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연설은 패기에 넘치는 젊은이의 웅변이 아니라 노인의 침착하고 부드러운 연설임을 상기할 때(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키케로 지음, 숲 출판사에서 인용)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기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일까요.

가천연 존자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이만 먹었다고 다 노인이 아니요, 눈, 귀, 코, 혀, 몸이 바깥 경계에 여전히 애착하고 있는 경을 발견한 것은 의외의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말년의 한 설법에서 한 나라가 오래도록 번영하려면 신구세대가 화합해야 하고 어른을 공경해야 한다는 아주 유명한 바지국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계 주고 계십니다(대반열반경).

젊은이에게 연륜을 들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호방하고 저돌적인 패기는 젊은이에게 물려주고, 이제 평생을 공들여 키워온 인생의 나무에서 달콤하게 무로익어가는 열매를 맛보며 깊이 음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노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될 것이지요. 젊은이들은 그런 노년의 원숙한 모습을 무엇보다도 부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미령(중국경원 역경위원)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 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타이, 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문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경소이자 보타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손꼽히는 한려수도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 관광과 방생지

· 목숨에 가득 채워진 독소(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을 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사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am http://www.cafe.daum.net/Csongwon http://www.cafe.naver.com/teehae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2006 통영바다 어류방생 유등축제

- 일시 : 2006년 6월 10일(토) 18:00~21:30
- 장소 : 통영시 도남동 도남관광지
- 주최 · 주관 : 통영시, 통영시사암연합회
- 행사내용
 - 쌍계사 조실 교산 큰스님 법어
 - 소원 적어 유등 띄우기, 어류방생, 수륙대제
 - 석지연 스님 찬불가요 공연
 - 인기 가수 태진아, 유지나 초청공연
- 문의처 : 두타사 TEL 055)646-1477, 011-704-2701 FAX 055)648-1366

※유등은 선착순 3,000명을 접수하오니 희망자는 연락주세요.

